

+ 이기욱 · ING 생명 FC

당신의 인생목표는 행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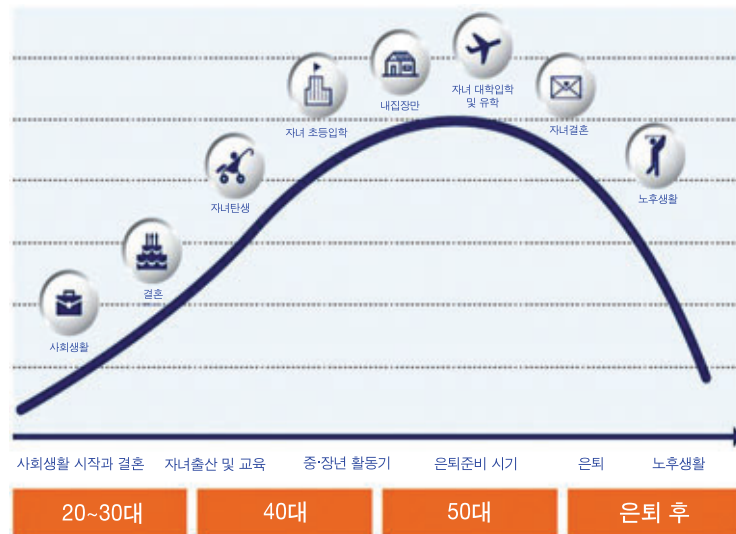
따르릉~ 새벽 6시에 자명종 소리가 김길동 씨를 단잠에서 깨운다. 두 아이의 아빠인 김길동 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준비를 서두른다. 아침을 먹는 중 마는 중 하며 버스에 몸을 싣는다. 버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출근전쟁에 동참한 상태이다. 버스에서 내려 전철로 갈아탄다. 전철은 버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출근시간에는 늦지 않게 회사에 도착한다. 새벽부터 서두른 덕에 피곤하지만 회사에 늦지 않게 도착하여 자기 책상에 앉아 커피 한 잔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루 일과는 정신없이 돌아간다. 부서별 회의, Project 수립 및 계획 등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 시계에서는 오후 6시를 알리는 알람소리가 울린다.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수없이 쌓여있는 업무량에 오늘도 가족과의 사소한 행복마저도 뒤로하고 야근을 감행한다. 매일 야근을 하지만 일의 양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야근을 마친 후, 전투에서의 패잔병 모습으로 퇴근 전철에 몸을 싣는다. 집에 도착해 녹초가 된 몸을 침대에 누인다. 피로를 풀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김길동 씨는 이와 같은 생활을 벌써 10년째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삶 속에는 아내와 아이들은 전혀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당하기도 벅찬 인생이다. 그렇게 인생의 시간은 흘러 어느새 은퇴를 맞이하여 노년을 살아가고 있다.

김길동 씨의 인생은 어디로 갔는가? 김길동 씨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도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박수를 보내줘야 할 것 같다. 국민의 4대 의무(국방, 근로, 교육, 납세)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지만, 국민의 5대 의무는 이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국민의 5대 의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의 4대 의무에 행복의 의무를 더한 것이다. 누구나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행복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행복은 가슴으로 느끼고 실천해야 하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행복을 머리로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행복의 개념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현재 우리의 일상을 보면 안타까움이 먼저 밀려오는 것은 사실이다.



Life Cycle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외 없이 누구나 전 세계에 한대만 존재하는 인생(Life)이라는 자동차를 한대씩 소유하고 죽을 때까지 운행하게 된다.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자신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중간에 팔아버릴 수도 없으며, 신행 자동차로 교체할 수도 없다. 편리성을 더하거나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도 그 누가 대신 손을 봐 줄 사람도 없다.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모든 것을 폐차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자동차의 수명은 각각 다르겠지만 2008년 기준 남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수명은 평균 76.5년, 여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수명은 평균 83.3년이다. 자동차 출시시점부터 30년간 자동차 유지비 대부분을 자신이 지불하지 않고 거의 부모님이 지불하며, 그 이후부터 폐차할 때까지 자신이 직접 유지비를 지불하며 운행하게 된다. 자신이 직접 운행하는 기간 동안 배우자와 자녀들을 태워야 하며 때로는 부모님을 함께 태워야 한다. 운전자는 최고로 좋은 차로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자신이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또는 비포장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운행하는 시점부터 폐차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자동차가 운행되는 시간 동안 사회생활과 결혼, 자녀 출산과 교육, 중/장년 활동, 은퇴 준비와 은퇴, 노후생활 등의 경유지를 거쳐 목적지에 도착한다. 물론, 개인별로 체감속도는 다르지만, 자동차의 속도는 인생의 나이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은퇴(60세) 이후에 필요한 유지비를 적어도 30세부터 60세까지는 마련해야 은퇴 이후 30년을 무리 없이 운행할 수 있다.

구분	정의	수입/지출	주요 내용	준비사항
20대	초석을 다지는 시기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저축을 시작하라	수입>지출	사회생활, 결혼	1. 홀로서기 위한 독립자금 2. 스스로 준비하는 결혼자금 3. 재테크를 위한 종자돈
30대	가족을 책임지는 시기로 가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	수입<지출 수입>지출	자녀 출산과 교육	1. 자녀 성장을 위한 교육자금 2. 만일의 경우 대비 가족보장 3.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40대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든든하게 준비하라	수입>지출	중/장년 활동기	1. 중대질병에 대한 건강보장 2.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은퇴자금 3. 자녀 교육을 위한 대학등록금 및 유학자금
50대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로 제2의 인생을 위한 기반을 다져라	수입>지출	은퇴 준비 시기	1. 자녀의 새출발 위한 결혼자금 2. 제2의 인생을 위한 노후자금 3. 자녀를 위한 상속플랜
60대 이후	제2의 인생기	수입>지출	은퇴/노후생활	-

인생의 프로 선수

스포츠 경기에는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가 있다. 그들의 몸 값은 경기 결과와 성적에 따라 정해진다. 그렇다면 당신의 몸 값은 얼마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아마도, 바쁘다는 핑계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 당신의 무성의가 가족과 가정을 힘들게 하고, 인생이 불행으로 달려간다. 당신도 인생에서 프로 선수다. 프로 선수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천할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인생 자금]

(단위 : %, 원, 년)

구분	비율	금액	기간(년)	합계	비고
생활비	33.8	2,600,000/월	30년	936,000,000	260만×30년×12개월
교육비(양육비)	16.6	230,000,000/인		460,000,000	아들/딸 각각 1인
결혼 자금	6.2	128,000,000/남자 43,000,000/여자		128,000,000 43,000,000	
주택 자금	10.7	296,166,000/평균		296,166,000	
노후 자금	32.7	2,510,000/월	30년	903,600,000	251만×30년×12개월
합계	100.0			2,766,766,000	



당신의 몸 값은 27억 6,676만원이다. 당신의 몸 값은 당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이다. 이것은 당신이 30년 동안 수입을 창출한다고 가정한다면 월 769만원씩 자금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인생 자금의 비중을 보면 생활비 비중이 33.8%이며, 노후 자금 비중은 32.7%로 두 번째를 차지한다. 자금이 노후를 준비할 가장 빠른 시기이다.

김길동(35세) 씨가 지금부터 35년이 지나 70세가 된 시기를 가상으로 구성해보았다. 그때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현재 노후를 위해 그 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35년 후의 내 모습

여기는 구로구 구립양로원. 김길동(70세, 2045년) 씨는 아내가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백발노인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 식당을 향했다. 백발노인이 100여명 정도 줄지어 서 있다.

남자 65세 이상 절반이 일하게 된다

김길동 씨는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옷을 갈아입고 구청버스에 탑승했다. 시내 중심가에 들어서더니 몇 명의 노인을 내려놓았다. 일터였다. 시청 민원서류를 관리하는 업무였다. 그나마 일자리라도 있어 행복하단다.

김길동 씨는 의문이 생겼다. 내가 공들여 키운 자식은 어디 있는가? 직장 다닐 때 가입했던 국민연금이 나올 텐데? 그래도 집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늙으면 돈이 효도한다

김길동 씨는 서울 시청 본관 앞 잔디밭에서 손자들과 산책하는 친구 최행복 씨를 만났다. 최행복 씨는 늘 절약과 저축 그리고 투자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자네 소식은 동창회에서 조금 들어.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힘내게. 다음 동창회에 꼭 나오고, 우리 며느리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난 이만 가 봐야겠네. 그럼 또 보세!”

“젊었을 때는 나도 잘 나갔었는데 이제 저 친구랑 처지가 영 달라졌구나.”

김길동 씨는 실버타운이 정말로 그리워졌다.

우리는 노후 자금이 많이 필요한 현실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간과하고 있다. 그대들은 이제라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